

# “혁신위 공천률 개정 비명계 학살 밀그림”

민주 이원욱 의원,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서 “이재명 공천률 손봐 비명계 학살하려 사과 표명 안해”  
이화영 재판 파행에 “황당... 보이지 않는 손 움직였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대의원제 폐지·공천률 개정 검토에 대해 “비명계 공천 학살을 위한 밀그림”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에 대해 사과하는 순간 해체 등 수순을 밟아야 하는데 이 대표 입장에서 아직 개발 영향력을 강화하고 공천제도를 손봐서 비명계를 학살하고 싶은 탓에 아무런 (사과) 표명을 안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중앙위원회 72%의 찬성으로 만들어진 공천률이 있다. 원래 공천률은 당헌상 1년 전 확정하도록 돼 있다”며 “확정이 된 것을 또 다시 손보는 게 맞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공천률을 지꾸 손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마도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학살 작업으로 보여진다”며 “이것이 수용 가능하려면 대의원제나 공천률 등 때문에 당 지지도가 못 오르



고 있다는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말 평가를 해보니 공천률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수용 가능하지만, 자의적인 판단으로

비이재명계의 학살로 의심할 수 있는 공천률을 이재명계 일색의 혁신위가 건드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다수가 이 정도는 수용하고자 한다면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무리라고 한다면 철회해야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의원은 전날 파행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과 관련해선 “아주 황당한 일들이 벌어졌다”며 “아주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다. 검찰은 고의적 재판 지연 아니냐고 의심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보면 이 전 부지사의 그 말이 두려운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손은 이 대표냐고 묻는 사외자 질문에는 “거기까진 모르겠다. 그렇다면 보이는 손이라고 얘기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전담과 관련해선 “9월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며 “이 전 부지사가 어떤 발언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피신조서에는 이미 진술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돌아다닌다”고 했다.

나아가 이 대표가 구속될 가능성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이라면서도 “이 대표 체제 문제는 법령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대표를 사임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 체제는 계속 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구속이 되더라도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 전망이다.

그는 “육중공천이라는 이야기들은 이 대표의 진심어린 생각이 아닐까 싶다”며 “이 대표는 절대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 대표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가 그만 내려 놓으셔야 한다”며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뉴시스

## 플랭클린 템플턴 전주사무소 개소 “매우 반가운 소식”

민주 김성주 의원 “국내외 자산운용사 진출 기대... 추가 유치 위해 더욱 노력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전주병,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의원은 글로벌 대형 자산운용사인 플랭클린 템플턴 전주사무소 개소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북 혁신도시에는 뉴욕증권은행, SSBT 등 9개 국내의 금융기관의 사무소가 설치되면서 큰 기대를 모았지만 후속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아쉬웠다”면서, “그동안 전주사무소를 개설한 금융기관들은 주로 국민연금의 수탁업무만 다루었던 것에 비해 외국 자산운용사의 전주사무소 설치에 처음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8~19년 전

지 않아 매우 아쉬웠다”면서, “그동안 전주사무소를 개설한 금융기관들은 주로 국민연금의 수탁업무만 다루었던 것에 비해 외국 자산운용사의 전주사무소 설치에 처음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이번 사무소 유치는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의

역할과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도움이 컸다”며, “최근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지연에 따른 불만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설이 불거지는 가운데 이번 플랭클린 템플턴 전주사무소 개설은 반가운 소식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 국내외 금융기관들의 추가 유치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플랭클린 템플턴은 1974년 뉴욕주에서 설립됐으며, 세계 10위권 자산운용사다.

현재 30여 개 국가에서 1,300여 명의 운용 전문인력이 총 1조4,000억 달러(USD)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 “잼버리 참가자들에 좋은 추억과 이미지 심어주자”

전북애항본부 “12일까지 최선 다해 유종의 미 거둬들일 것”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를 두고 정치권이 네 탓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애항본부는 9일 호소문을 통해 “2017년 대회 유치 후 온갖 노력을 기울여 온 전북으로서는 (이번 잼버리 상황이) 참관하기 그지없다”며 “내외의 새만금 영지 철수를 바라보는 전북도민의 상실감과 허탈감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했다.

이어 “준비 미흡과 부실 운영, 컨트롤 타워 무능, 예산집행 적절성 여부 등 대회 전반에 대한 점검은 나중에 해도 충분하다”면서 “12일 폐영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대회를 알차게 운영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내외 분산이동 결정에 따라 전북에서도 10개국 5700여명의 대원들이 현재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교류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반응은 매우 좋다”면서 “전북도민은 잼버리 모든 대원들이 떠나는 12일까지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둬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잼버리 참가자들이 전북에 머무는 동안 따뜻한 정을 느끼고 맛과 멋, 우수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의 마음을 보여 달라”면서 “향후 그들에게는 추억과 이미지 심어주는 좋은 추억과 따뜻한 이미지를 심어줘 훗날 전북을 다시 찾는 계기로 삼자”고 호소했다. /뉴시스

## 새만금 떠난 한국 스카우트들 각 지자체 프로그램 참여

제6호 태풍 ‘카눈’의 여파로 전북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한 158개국 3만6000여명의 대원들이 새만금을 모두 떠났다. 국내에서 참가한 대원들도 전국으로 흩어져 남은 잼버리 일정을 소화한다.

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 스카우트들은 정부가 마련한 숙소에서 외국 참가자들과 함께 지자체별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전북에서 잼버리에 참가한 600여명 중 성범죄 논란으로 자진 퇴영한 전북 연맹 비미이프랜드 소속 72명은 시·군 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김관영 도지사는 9일 오후 4시에 제6호 태풍 ‘카눈’ 내습에 따라 긴급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 전북도, 태풍 ‘카눈’ 대비태세 점검

김관영 도지사, 점검회의 열고 선제적 주민대피 등 주문  
산북천 제방보수 상황 점검·원광대서 잼버리 대원 격려

김관영 도지사는 제6호 태풍 ‘카눈’ 내습에 따른 대비태세 점검을 위해 도·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긴급 대처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선제적인 사전통제와 주민대피로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근무체계를 가동할 것을 주문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제6호 태풍 카눈은 최대 풍속 35m/s, 반경 350km에 이르는 강한 태풍으로 10일 아침 남해안에 상륙할 예정이며, 전북에는 10일 새벽부터 밤사이 영향을 미칠 예정으로 전북동부에는 300mm 이상의 많은 비와 25m/s의 강풍이 예상된다.

이번 태풍이 많은 양의 비와 강풍을 동반함에 전북에서는 9일 오후 3시부터 선제적으로 도지사 주재의 비상3단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산사태 취약지역 기준 호우 및 지진발생지역에 대한 사전점검도 지속적으로 시행중에 있다.

또한 수문, 배수펌프장 등 배수시설과 저수지를 대상으로 긴급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하차도별 4인의 담

당자를 지정해 위기상황시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저수지 사전방류, 농업용배수로 준설, 옥외광고물 및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등 사전대피에도 철자를 기울이고 있다.

전북도는 둔치주차장, 지하차도, 하상도로, 하천신축로 등 침수 위험시설에 대하여는 선제적인 통제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붕괴나 침수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는 사전대피를 권고하며, 필요시 대피명령도 발령하여 소중한 도민들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오후 4시에 열린 긴급 대처상황 점검회의 중 “재해취약지역 사전점검 및 선제적인 주민대피를 실시하고, 지하차도는 담당자를 현장에 배치해 신속히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고, 특히 도내 남아있는 5,600명의 잼버리 참가자들이 한국에 좋은 기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김관영 도지사는 회의 후 지난 잠바

에 침수위험으로 400여명의 주민들이 대피했던 익산 용안면 산북천 일원을 찾아 제방보수 상황과 배수통문 재가설 현장을 점검했으며, 220여명의 잼버리 참가자들이 머물고 있는 원광대를 찾아 잼버리 참가자들의 격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재훈 기자

## 김광수 전 전북도 정무수석 음주운전 혐의 불구속 기소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김광수 전 전북도 정무수석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문지선)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 전 수석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그는 지난 6월 25일 자정께 술을 마신 채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를 3km가량 운전하다가 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8%였다.

김 전 수석은 “공인으로서 도민들과 도정에 누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사퇴했다. /뉴시스

청소년을 위한 여름방학 선물

# CINEMA FANTASY

2023. 8. 19(토) 3:00pm

문화공간 이룸 ART SPACE

주최 : 주관 | 문화공간이룸  
후원 | 후원 | 후원  
티켓 | 전석 1만원 |  
예매 | 예매 | 예매  
문의 | 063)223-5323  
카카오톡 채널 '문화공간이룸'

본 행사를 위한 Cinema Fantasy는 (재)전북지역문화재단 2023년 지역문화예술육성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입니다.